

2022년 8월 14일
금문교회 광복절 77주년 주일예배
조은석 목사

목회기도
시편 102:20-21

성찬식
고린도전서 11:23-29

강건실 장로 추도사
Dr. Charles George Suhayda

김혜련 사모 아프리카 파송기도
Sending Prayer: Samonim Hye R. Kim to Africa

광야 40년
The Forty Years in the Wilderness
사도행전 Acts 13:18

18. 광야에서 약 사십 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And for about forty years he put up with them in the wilderness.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첫째로, 오늘은 한반도 해방 7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정확하게는 내일이 그 날입니다. 77년 전, 하나님께서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신음하던 한반도를 해방시켜주셨습니다.

이것을 한국교회는 “제2의 출애굽”으로 인식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도 여기 이 인식에 동참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주제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분단극복,” 곧 “남북통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살롬통일 기도문”을 주보에 실어 묵상합니다.

또한 오늘은 강건실 장로 3주기 추도를 합니다. 오늘 예배에 특별히 찰스 조지 수헤이다(Dr. Charles George Suhayda) 박사가 참석했습니다. 예배 후반부 순서에 따라 그가 나와 추도사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또한 김혜련 사모님을 아프리카 파송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내일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를 향해 가는 사모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주제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역사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역사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가 강해를 계속하는 사도행전을 그대로 따라 “출애굽” 사건을

증거 합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이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은 광야 40년 동안 행진의 길에서 날마다 큰 동력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40년은 반역의 세월이었습니다. 과거 출애굽 사건만 잊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는 새 출애굽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은 죄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계속되는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 것은 아닙니다.

끝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전멸했습니다. 출애굽의 영광을 직접 경험한 “간증”이 있는 이스라엘, 홍해바다 저편에서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합창했던 그들,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성막을 건설”하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들이, 모두 전멸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준엄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신앙이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오늘의 신앙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전멸하고 말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는 불행이 우리 운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해야 합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이들의 믿음은 크게 빛났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다 메뚜기 같았다고 했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다 패하여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그들의 보고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The all the congregation raised a loud cry, and the people wept that night.

민수기 Numbers 14:1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보이셨는데, 이스라엘은 “불신”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견지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 함께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민수기 Numbers 14:7-10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열 명의 정탐군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도리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거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Say to them, “As I live, declares the Lord, what you have said in my hearing I will do to you: your dead bodies shall fall in this wilderness.

민수기 Numbers 14:28-29a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신 대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출애굽 제1세대 중에서 요단강을 건넌 유일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생활을 믿음으로 이겨낸 여호수아와 갈렙을 다시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른 어떤 일에 재주나 재능이 없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진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사람들은 세상에서 눈치가 빨라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투기, 증권 같은 투자가 대세를 이루는 때는 더더구나 필요한 덕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솝 우화를 들어 설명하자면, 토끼처럼 자기 실력만 믿고 순간에 반응하지 않고, 거북이처럼 꾸준한 성도들입니다.

광복 77주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일제에서 해방된 과거 사실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에 이르도록 “반복적인 해방,” 곧 “반복적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잊은 것은 “과거의 은혜” 만 아니라, “계속되는 오늘의 은혜” 도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미래가 없는 족속이었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에 그들은 “죽음의 행진” 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입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하셨고, 오늘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 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히브리서 Hebrews 13:8

하나님께서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says the Lord God,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the Almighty!”

요한계시록 Revelation 1:8

남북을 가로지른 휴전선이 무너지고, 살롬 평화로써 한반도가 하나가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써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열 명의 정탐군과 같고, 온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 작은 무리들이 말씀의 은혜 아래 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새로운 지도력을 주셔서, “광야에서 난 새로운 세대” 를 이끌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신학공부를 모두 마치고 금문교회에 와서 부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준비했던 강건실 장로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로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깨닫습니다. 그 부르심은 멈추고 만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광야 행진에서 되어야 하는 사명입니다.

최관신 선교사님과 김혜련 사모님을 부르사, 고난의 땅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소외된 피그미족에게 복음을 증거 하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날마다의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최관신 목사님 부부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계 곳곳으로 파송하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s.

시편 Psalm 23:5c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흘러넘쳐 나갑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총만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가서 나누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지금도 받고 있는 그 은혜를 헤아려 봅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끄시는 그대로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잊지않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가 엄습하는 한반도를 기억하사, 평화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한반도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한반도만 아니라 모든 분열과 갈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세상의 모든 땅을 축복하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그 새로운 지도력을 허락하옵소서. 온 세상을 이끌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천국길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